

buddhanews.com

내면의 주인공을 믿고 절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런데 그 주체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뭉치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제 받기 위해서 기도하든 그러기에 '아, 당신 영혼은 당신한테 있지 따 데 있느냐.' 이랬죠. 당신부터 알아야 따 데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바로 전화통이려면 당신부터 전화해, 당신의 이 몸뚱이의 집에 전화를 놔야 따 데도 전화를 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여기도 전화를 놓지 않고 어떻게 남의 집에 전화를 할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제일 첫째,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됨으로서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진리를, 골간 데 있는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물리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체를 꼭 믿으셔서 가정의 어떤 문제도 그 자리에 맡겨 놓고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이지요

☞ 인터넷으로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주인공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이요?

☞ 여러분은 생활 속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되는지, 어떠한 것이 불법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활이 불법이나, 그리고 진리며 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서 어느 신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참나가 있다. 참나는 나를 수억겁 광년 전에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끌고 갈 거다.' 그런 거를 진실히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주인공이라 하면 개별적인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주인공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와 마음이 직결돼 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이요,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냐.' 하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바로 그 '한마음'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몸뚱이 속의 수십억 마리가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움직여주려 주고 어떤 것은 안 움직여주려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것이 움직여갈 때 내가 움직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그 수십억 마리의 대표 인입입니다. 한마음, 한생각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격이나 사장격이요, 이 오장육부에, 또는 세포에 어떠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 공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공장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지배를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럼 그 공장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떡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개별적인 내가 아니냐? 내 몸속으로도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서 짓는 그 참나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거든요. 바깥의 외부의 일도 바로 나 자체가 개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밖으로도 개별적인 나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나 생명이 들어 아니다 이 소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사는 데 '나야, 내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전에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말도 하게 하고 똑똑하게 다

꾸 끄달리지 않고 옆에서 죽는대도 눈 하나 깜짝 거리지 않고 여기다 말길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저절로 바로 승천이 돼요. 각자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도 없고 생활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며, 생활이 있는 것이고 바로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는다면 너무 멀리 찾아요. 부처님이 가족 속에, 모두 이 원 안에 전체가 들어 있다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풀포기 하나 빼놓지 않고 같이 다 들어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 나 이외에 따로 있는 줄 알고 '나 좀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칠성한테 가서 빌어야지, 산신한테 가서 빌어야지, 여기사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러다가 보니까 왕까지 가서 무슨 뭐 거북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이름 써서 갖다가 넣고선 그것도 또 잘해 달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귀신 아닌 귀신 짓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기술이 주어진 대로 과목이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규모 있게 이 주인공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몸뚱이 이것은 참자기의 시봉자밖엔 안 돼요. 즉 말하자면 시자다, 또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마음이 동하질 않으면 이 자기 마음 주인공이 고집이 세어 가지고요,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살아 보셨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거기에 틀리다고 할 때는 전혀 아주 그냥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의 심부름꾼이겠습니까? 자기의 자기가 심부름꾼이죠.

내 참나인 주인공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주인 거지, 나는 관리인이요 심부름꾼이다.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바쁜 세월에서 그대로 나는 심부름을 부지런히 하고 내 주인공의 뜻에 의해서 나는 부지런히 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걸 막론해 놓고 해결 못하는 것도 없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안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고 행하는 거고, 즐거운 거고 자유스러운 거지 누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범당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거기 있으니까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 없다면 부처님은 없어요. 자기가 변소에 있기 때문에 부처도 변소에 있고 자기가 안방에 있으니까 바로 부처도 거기 있고 하하하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따 데 가서 찾습니까? 산기도 간단하고 가지를 않나. 무슨 답요니 뭐니 해서 잔뜩 해 가지곤, 먹을 것도 미숫가루 해 가지곤, 그래도 살 양으로요, 아, 죽어야 죽는 세상을 보지 살고서야 어떻게 죽는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 하러 간대요. 상대가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오븐과 같아서, 바로 자기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하죠. 그러면 오븐이라면 그 집 속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쪼여 내고 데워 먹고 거기서 다 나오고 들고 하는 거죠. 따 데서 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뚱이가 오븐이라면 거긴 불도 필요하고 뭐 재료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쪼여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오븐에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데워서 먹고 쪼여 먹고, 사다가 거기서 해 먹듯이 여러분이 육신 속에서 다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요.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이 목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이유가 불습니까, 안 불습니까? 똥 누러 갈 때에 이유가 불런가요? 이유가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불습니까? '나는 이제 아리송해, 이게 아리송해, 그거 뭐 누구냐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도 그 이론은 다 알아요.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90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전부 병 앓는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또 그 빈가, 난 이름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위암 식도암 목암 할 거 없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재료를 가져왔으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해 봐라 이겁니다. 나요, 내가 의사가 돼서 고쳐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고치면 바로 고쳐 저절로 고치는 거니까 그 실험을 해 봐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험해서 자기가 한번 실험해서 그거를 딱 포착을 했으면 체험을 하고는 다른 게 돌아오면 또 그렇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험한다고 그래도 편안하죠. 일하면서 말합니다. 앉으나 서나 그냥 참선입니다. 실험이고, 그대로 그냥 연구. 얼마나 편리합니까? 생활이 없고 부처가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고 여러분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이 무슨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도 자기의 근본에 맡겨 놓고 모든 것 주인공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편안하실 겁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불습니까

니게도 해 주는데 아니, 내가 혼자 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돌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서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 내부나 외부나 같이 돌아가는 거,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이 우주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나 하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총합해서 '주인공'이라 한다면 내 근본에다가 맡겨 놔야죠. '아! 내가 억겁 천년 서부터 이끌어 온 것도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도 끌고 가는 게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아픈 것도 내 주인공밖에는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다. 내가 가난한 것을 이끌어 주는 것도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 내가 일이 막혀서 안되는 것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진짜 당황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다가 자

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이,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요다에 또 나와도 그 습성 그대로 가질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털웃을 입을 수도 있고 뱀 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습을 떼지 못해서 또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인간도 얼마나 차원이 천차만별로 많습니까?

살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인은 상인대로, 또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아주 자연히 누가 그거를 가리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장단 맞추고 끼리끼리 그렇게 모두가 정말 그 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모든 문제,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또는 미술적으로나, 어떤 천문학적으론 천체를 리학적으로나 이러한 문제 등등이 여러분 앞에

건강염려증이 심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생애 몸이 아파서 많이 고생을 했는지 건강 염려증이 심한 편입니다. 무슨 큰 병은 없는데도 누가 무슨 병에 대해 얘기만 하면 제가 꼭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걱정돼서 속을 끓이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나의 부정적인 의식들을 벗어나서 좀 호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습니까? 병이 나도 바로 '아, 이 병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깐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할 수밖에 없지.' 할 때에 비로소 그 병은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병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약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난을 면했다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판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체 만물을 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바로 현실의 모든 것을 보는 거고 듣는 거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에도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